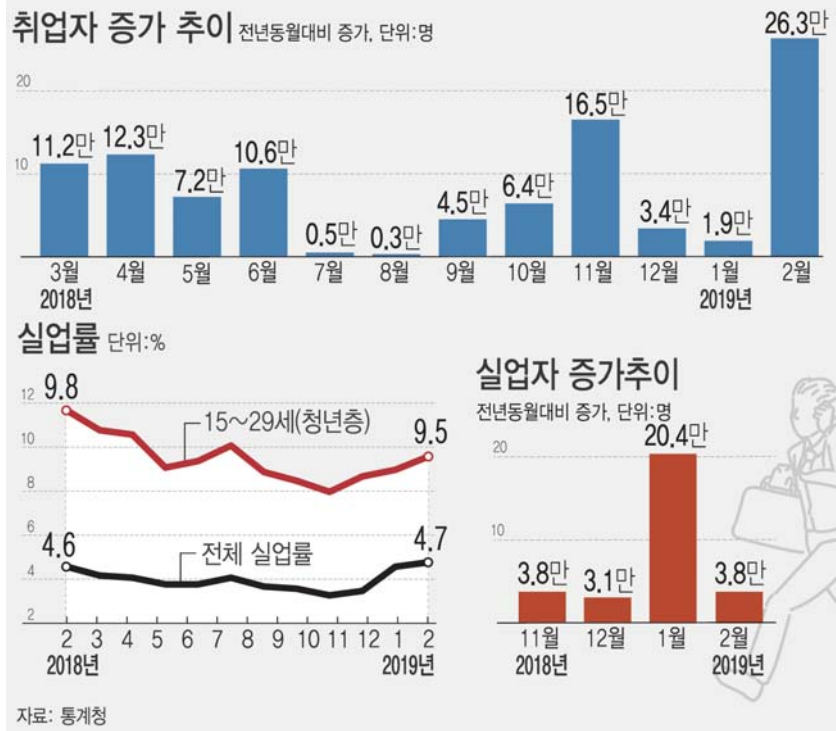


2월 고용 반짝 회복...정책 효과로 60대 역대 최대폭 ↑

통계청, '2019년 2월 고용동향' 발표...지난달 취업자 26만3천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30만명대에 진입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0%)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남자 취업자가 1589만3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0만1800명(0.7%) 증가했다. 여자 취업자는 117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2000명(1.7%)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개선 폭이 컸다. 60대 취업자는 지난해 39만7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이다.

20대 취업자도 3만4000명 소폭 늘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줄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수를 보면 30~40대는 감소하지만 60대는 늘고 있어 그 영향이 크다. 인구가 늘어나니 취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고를 냈고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업종으로 유입되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3만7000명이 늘어났다. 증가 폭은 역대 최대 폭이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에서도 1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밖에 늘어난 업종은 농림어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7000명), 교육 서비스업(1만5000명) 등이다. 숙박·음식점업이 1000명 늘어나면서 2017년 6월(-4만4000명) 이후 2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농림어업의 경우 고령화 영향이 크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다. 은퇴 후 귀촌해 일하는 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데다 한 번 진입하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업종 특성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30~40대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15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건설업(-3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9000명) 등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융합 문화,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지난해 4월 6만8000명 줄어든 후 감소세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가 포함되는 전자 부품을 비롯해 영상통신, 전기장비 쪽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6시간을 넘지 않는다. 지난해 취업 시간대가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75만1000명 늘어났다. 반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업시간이 36시간을 넘는 취업자는 44만3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선 상용근로자가 29만9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0.7%p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개선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에서 상용직이 대부분인 점과 연결된다. 임금근로자도 4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임시근로자가 4만3000명 감소했다. 이 역시 임시직이 증가하고 있던 노인들이 정부 일자리 사업 공고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통계 당국은 분석한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3만3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등 부진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만명 감소한 탓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000명)와 무급가족종사자(1만3000명)는 늘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6.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0.5%p)와 40대(-0.2%p)에서 악화됐고 50대(0.1%p), 60세 이상(1.8%p)에서 개선됐다. 인구 효과가 제거된 고용률을 봐도 30~40대와 50~60대의 상황이 차이가 났다.

반면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2월(134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0대에서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자가 4만3000명 늘어났다. 실업자는 30대(1만5000명)와 40대(1만1000명)에서 모두 늘었다. 반면 60대에선 2만1000명 감소했고 20대에서도 1만2000명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7%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이 역시 2017년 2월(4.9%) 이래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은 13.4%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역시 사상 최고치인 24.4%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해선 1.6%p 오른 수치다.

뉴스

2월 광주 고용률 소폭 하락·전남은 상승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지난 2월 광주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조사 결과 광주 고용률은 58.2%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다.

취업자는 7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줄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5.3%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다.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늘었다.

광주시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12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2%)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7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과 같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6%) 늘었다.

지난 2월 전남 지역 고용률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1.9%p 상승했다. 취업자는 9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8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67.7%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 줄었다.

전남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1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2%) 줄었다.

경제활동인구는 9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1.3%)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4800가구 중 광주 지역 1600가구, 전남 지역 18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6일까지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윤규 기자

1월 은행대출 연체율, 0.45%...전월비 0.05%p ↑

금융감독원

지난 1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년 12월말 대비 0.05%p포인트 상승했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7000억원)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연체율 상승은 전월의 기저효과란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말 은행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대비 0.20%p포인트 하락했다. 차주들이 연말 들어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해 연체율이 큰폭 개선된 것이다.

1월 연체율은 과거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2016년 1월(0.67%)과 2017년 1월(0.53%) 보다는 낮고 지난해 1월(0.42%) 보다는 약간 높다.

차주별로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큰폭으로 올랐다.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8%p포인트 상승한 0.57%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6%로 0.04%p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1%로 한달 전보다 0.02%p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8%p포인트 오른 0.59%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말 대비 0.02%p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포인트 오른 0.20%로 나타났다. 그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p포인트 상승한 0.47%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페인 지중해 와인 맛보세요~

1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스페인 화이트 와인 '비나 에스메랄다 스프링 에디션'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소공동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에서 스페인 '토레스(Toros)' 사의 화이트 와인 '비나 에스메랄다 스프링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

뉴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